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03-3 장항 화물역 앞 부지입니다.

가격 : 4억 2,150만 원

*구매 의사가 없더라도 탐방 가능합니다.

문의 :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 010 - 4953 - 2913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일반 103-3		
지목	전	면적	396 m ²
개별공시지가 (m ² 당)	116,300원 (2018/01)	73-26 73-27	251 m ² 283 m ² > 281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 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150.8 = 421.500

סהכ = 421,500,000

확인 도면

범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소로1류(폭 10M~12M)
- 소로2류(폭 8M~10M)
- 소로3류(폭 8M 미만)
- 철도
- 법정동

축척 1/1200

$$\begin{aligned}
 103-3 &= 396 \text{ m}^2 \\
 73-26 &= 251 \text{ m}^2 \\
 73-27 &= 283 \text{ m}^2 \\
 \hline
 &930 \text{ m}^2 \\
 &281.4 \text{ 평}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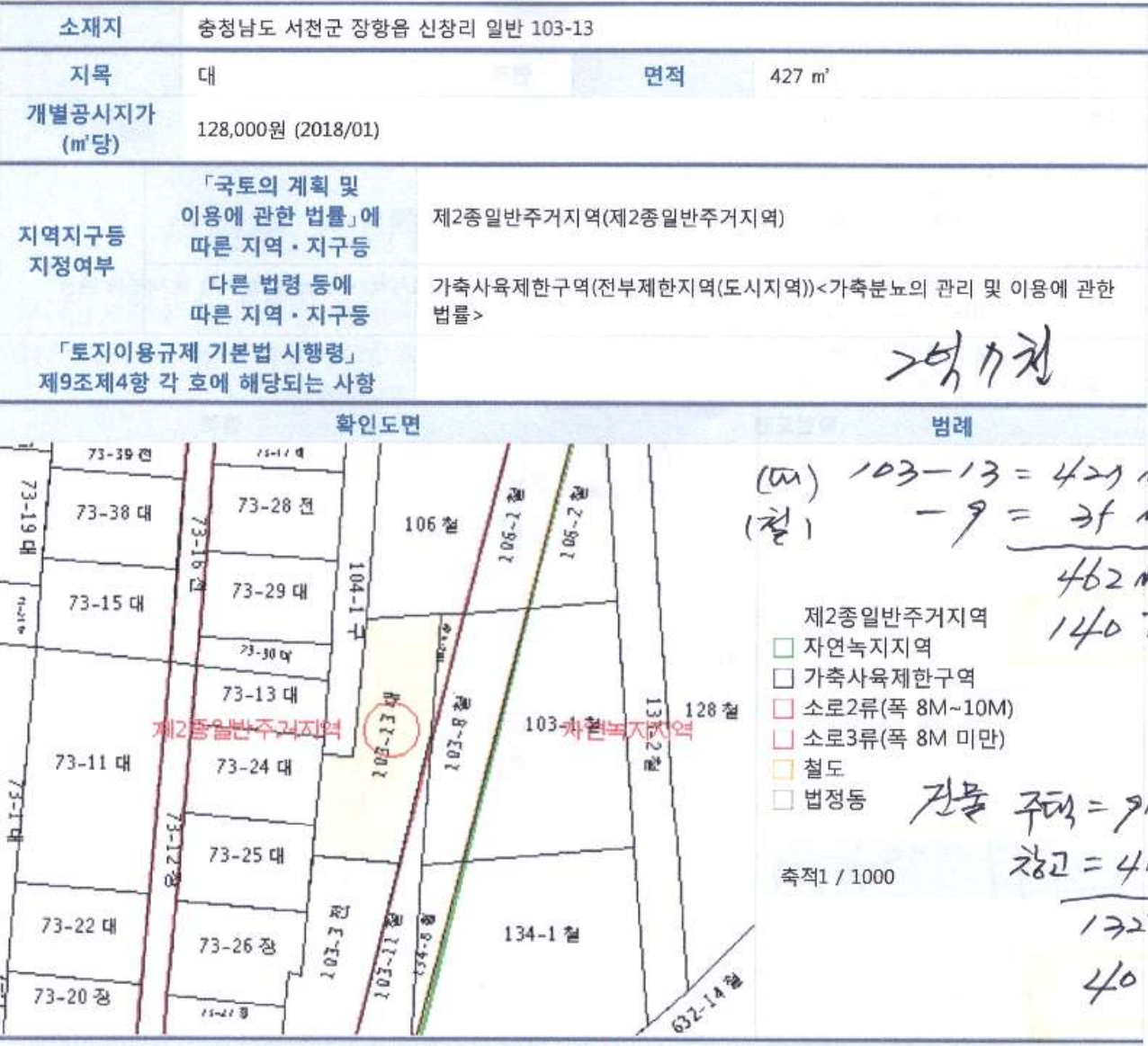
유의 사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03-13 장항 화물역 앞 부지 1층 건물입니다.

가격 : 2억 7천만 원

*구매 의사가 없더라도 탐방 가능합니다.

문의 :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 010 - 4953 - 2913







<103-3>



<103-3>

코너에 위치한 땅으로 주변 토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상태.



<103-3은 건물 앞 부지 / 103-13은 빌라 앞 1층짜리 건물입니다.>



<103-3 부지>



<103-3 부지>



<103-3 부지>

장항역 앞 토지로 현재 주변 토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 짧은 기간 지가 상승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장항역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기대감 있는 상태고, 주변 토지와 시세 차이 역시, 메리트라 할 수 있음.

서천군, 장항읍 활성화 3년간 300억 투입

2018-03-14기사 편집 2018-03-14 16:15:31

[서천]서천군이 그동안 장항항이 유명무실해 지면서 '불 꺼진 항구'로 불렸던 장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장항읍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방침이다.

서천군은 14일 한덕수 정책기획실장 주재로 관련사업 팀장 및 전문가, 주민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항읍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 TF팀 회의를 개최, 장항읍 활성화 대책을 내놴다.

장항읍 활성화 중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장항 농촌중심지 사업,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 사업, 장항 6080 프로젝트 도선장 가는길 사업, 6080 골목길 음식테마 관광사업 등으로 장항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핵심 사업들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서천군은 앞으로 추진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장항 복합문화 테마 지구 조성과 함께 향후 3년간 총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성장 동력 사업들을 발굴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군산대 건축해양건설융합 공학부 박성신 교수는 "장항 농촌중심지 사업 PM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장항이 가진 많은 잠재력에 대해 알게 됐다"며 "장항은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풍부한 곳으로 중심지 재생사업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덕수 정책기획실장은 "도입시설 기능의 중복방지, 체계적인 컨셉 유지, 거점 시설 간 기능 연계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장항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구상이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